

두 현대家の ‘폭풍영입’…내년 ACL이 기대되는 이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 에세이

송범근 등 영입한 전북 ‘왕좌 탈환’ 각오
울산, 박주호 김성주 영입…황일수 물망
적극적 투자로 K리그 자존심 회복 앞장

이제 2017년이 노후코리만큼 남았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도 한국축구는 다사다난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과정에서 국가대표팀이 겪은 진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선수, 감독, 협회 모두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또 다른 아픔도 있었다.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서 당한 K리그의 수모다.

서울, 수원, 울산, 제주 등 4팀이 출전한 2017년 ACL은 초반부터 불길했다. 서울과 수원, 울산은 제대로 힘 한번 못 쓰고 조별예선에서 탈락했다. 토너먼트에 오른 유일한 팀은 제주뿐이다. 하지만 제주도 16강에서 우라와 레즈(일본)에 졌다. 조별리그 참가팀이 32개로 확대된 2009년 이후 K리그가 단 한 팀도 8강에 오르지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충격은 컸다.

K리그는 2009년 이후 ACL에서 4번의 우승과 2번의 준우승을 했다. 성적 덕분에 아시아의 중심이라 자부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자부심도 드러내기 곤란하다. 리그 규모가 작음에도 성적까지 뒤처졌으니 말이다.

K리그 몰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빈약한 투자다. 최근 몇 년간 전북 이외에는 이렇다할 투자를 한 구단이 없다. 경제 한파에 따른 모기업의 재제기에 구단은 감



최근 몇 년간 모기업의 어려움 사정 때문에 위축되던 K리그 이적시장에 AFC챔피언스리그 진출팀 울산 현대의 공격적인 행보와 디펜딩챔피언 전북 현대의 응수로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번 겨울에 전북 현대가 고려대에서 영입을 성공시킨 GK 송범근, 포항 스틸러스에서 이적을 성사시킨 손준호, 울산 현대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박주호를 영입한데 이어 서울 이랜드에서 김성주까지 추가해 일한 전략을 꾸렸다.

기몰살을 앓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준급 외국인 선수 영입에 한계를 드러냈고, 기존의 주전급 선수를 다른 리그에 빼앗기는 악순환이 됐다.

K리그의 하향 평준화는 어쩌면 당연했다.

반면 우리의 라이벌인 중국이나 일본 구단들은 달랐다.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중국 슈퍼리그는 무력시위라도 하듯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거물급 선수들을 마구 영입했다. 이는 성적으로 연결됐다. 일본 J리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장기플랜이 가능하다. 올해 우라와 레즈가 10년 만에 ACL 정상에 오르며 이를 증명해보였다.



K리그 구단의 각성을 외치지만 사실 뾰족한 정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구단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게 개척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밑그림을 치밀하게 그려야 한다는 점이다.

단기 및 장기플랜의 구분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구단의 투자자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맹 차원의 지원이나 팬들의 관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화수분 축구를 위해 유소년 육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자생력을 위한 수익구조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돌아가야만 K리그의 규모와 질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이제 한 달 뒤면 2018년의 ACL이 시작된다. 수원이 내년 1월30일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아시아 클럽들의 정렬전은 막이 오른다.

FA컵 우승으로 출전권을 확보한 울산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선수영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대어급 박주호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데려왔고, 일본 J리그 알비렉스 니가타 출신의 미드필더 김성주와 계약했다. 중국 슈퍼리그의 황일수(헝베) 영입도 점쳐진다. 이외에도 몇몇 정상급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구단의 의지가 강하면 팬들의 관심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내년엔 울산의 성적에 주목해도 좋을 듯싶다.

2016년 ACL 우승팀 전북은 절치부심이다. 최



강희 감독은 “K리그가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며 ACL 정상 복귀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 도움왕 출신의 포항 손준호 영입을 시작으로 ACL에 대비한 전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해나간다는 소식이다.

울산과 전북이 기대되는 이유는 구단과 선수단의 일치된 목표의식 때문이다. 우승을 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모양새가 돋보인다.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른 구단들도 물밑에서 애를 쓰고 있으리라 믿는다. 아무튼 2018년 ACL은 K리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무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choihg2@donga.com

월드컵 본선 진출 포상금 2014년보다 5억 더 준다

25억원 확정…슈틸리케 전 감독은 제외

대한축구협회가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과 러시아월드컵 포상금 방안을 의결했다. 올해 총 77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던 대한축구협회는 이보다 25%가 늘어난 975억2024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결정했다. 또한 월드컵 본선 진출에 따른 포상금을 선수와 코칭스태프에게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0차전 가운데 최소 한 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들과 마지막 두 계임을 지휘한 신태용 감독과 코치진이 포상대상이다. 8차전까지 지휘봉을 잡은 올리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경기결과와 기



대한축구협회가 26일 축구회관에서 2017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의 포상금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록 등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세부 등급기준은 신태용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포상금 규모는 25억원으로 2014브라질 월드컵보다 5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당시 대

한축구협회는 A~D까지 등급을 4개로 나눠 포상금을 차등 지급했다. A등급은 1억원, B등급은 8000만원, C등급은 6000만원, D등급은 4000만원을 받았다. 본선행을 이끈 최강희 감독은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곽봉준 기자 shulout@donga.com

‘탁구천재’ 조대성, 중학생 사상 첫 전국선수권 4강

남 단식 국가대표 에이스 이상수 잡고 파란

국내 최고 권위의 탁구대회인 전국남녀종합선수권대회 남자단식에서 중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주인공은 대광중 3학년 조대성(15)이다.

조대성은 26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1회 남녀탁구종합선수권 남자단식 8강에서 국가대표 에이스 이상수(27·국군체육부대)를 세트스코어 4-3(11-8 3-11 6-11 11-9 11-9 8-11 11-5)으로 물리쳤다. 이상수는 올 여름 열린 2017 세계탁구선수권 남자단식에서 동메달을 따낸 남자 탁구의 간판이다. 이로써 조대성은 중학생으로 사상 첫 남자 단식 준결승에 오르는 역사를 만들었다. 여자부에서는 1968년 이에리사(63)가 중학생 신인으로 우승한 바 있다. 단식 1회



사진제공 | 월간탁구

전에서 임유노(14·장흥중)를 물리친 조대성은 이후 김경민(28·KGC인삼공사)과 조승민(19·삼성생명), 이준준(25·한국수자원공사) 등 실업선수를 차례로 격파하면서 8강에 올랐다.

한편 조대성은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 장우진(22·미래에셋대우)에게 세트스코어 0-4로 완패해 결승진출에는 실패했다.

최현길 전문기자

골프



박성현



유소연



전인지



김인경

김혜선2, 세마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

세마스포츠마케팅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기대주 김혜선2(20·골든블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프로 2년차 김혜선2는 올해 ‘SK핀크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이정은6를 연장에서 이기고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8위,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2017’ 9위,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6위 등 꾸준한 성적을 올렸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눈에 띄는 화려한 이력은 없었지만 2015년 말 KLPGA 정규투어 시드전에서 1부 시드권을 따낸 뒤 차근차근 단계를 밟



김혜선2

아가며 성장하는 선수다. 김혜선2는 이번 계약체결로 박세리, 박성현(KEB하나은행), 최나연(SK텔레콤), 양희영(PNS창호) 등 정경한 선수들과 함께하게 됐다.

김혜선2는 “세계적인 골프스타들을 관리하는 세마스포츠마케팅과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세마스포츠마케팅의 지원과 관리에 힘입어 내년 시즌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톱 10에 4명이나! 여자골프 세계랭킹 ‘태극낭자 천하’

박성현, LPGA 첫 시즌 2위로 마무리

2017시즌 세계여자골프를 수놓은 태극낭자들이 올해 마지막 성취표를 받았다. 결과는 예상대로 ‘한국 천하’였다. 26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2017년 최종 1위의 영광은 8.05점의 평 산산(중국)에게 돌아갔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성과가 세계랭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다음부터는 2017시즌 LPGA 투어에서 15승을 합작한 한국선수들의 줄 세우기가 계속됐다. 박성현이 7.92점으로 2위에 올랐고, 유소연이

한국여자골퍼 2017년 세계랭킹 최종성적					
세계랭킹	선수	점수	세계랭킹	선수	점수
2	박성현	7.92	12	최혜진	4.70
3	유소연	7.70	13	박인비	4.68
5	전인지	6.42	15	양희영	4.34
8	김인경	6.26	17	이미림	3.85
11	김세영	4.76	18	고진영	3.71

7.70점으로 3위다. 박성현은 비록 세계랭킹 1위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LPGA 데뷔 첫 해 신인왕과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을 품으며 완벽한 한 시즌을 보냈다. 유소연 역시 시즌 2승으로 내년

전망을 환하게 비쳤다.

이어서 이번 시즌 5차례 준우승에 그친 전인지가 5위에 올랐고, LPGA 최다승인 3승에 빛나는 김인경이 8위에 안착했다. 상위 10걸 가운데 4자리를 한국선수가 차지했다. 10위권 밖에서도 김세영~최혜진~박인비가 나란히 11~13위에 올랐고, 양희영~이미림~고진영이 각각 15위, 17위, 18위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6관왕에 빛나는 이정은6은 23위를 기록

했다. 연말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선수들은 내년 1월 퓨어실크 바하마스 LPGA 클래식을 통해 다시 기지개를 편다.

고봉준 기자

볼빅 문경안 회장 ‘12월 중소기업인’ 선정

대한민국 대표 골프브랜드 (주)볼빅(회장 문경안)이 12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장관 홍준하)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6일 ‘2017년 12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주)볼빅의 문 회장을 선정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09년 볼빅을 인수한 문 회장은 2010년 컬러골프공을 출시해 골프공 시장에 컬러볼 돌풍을 일으키며 2017년 현재 국내시장 점유율 30%대까지 끌어올렸다. 2016년에는 3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받았고 2017년에는 1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제9기 SKT-최경주 장학꿈나무 모집

최경주재단(이사장 최경주)은 2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제9기 SKT-최경주 장학꿈나무’를 모집한다. ‘SKT-최경주 장학꿈나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SKT-최경주 장학꿈나무’로 선발된 대학생은 등록금과 학습비를 비롯해 비전교육,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SKT-최경주 장학꿈나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와 지원은 최경주재단 홈페이지(www.kjchoifoundat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